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양선이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Sun-Yi Yang(ysy@ch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일 대학의 간호 대학생 198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아 존중감 척도, 의사소통능력 척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통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5점 만점에 자아 존중감은 평균 3.4 ± 0.57 ,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5 ± 0.42 ,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3.6 ± 0.58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남학생보다 여학생(85.4%),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72.2%)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 변수인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r=.156, p=.029$),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32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성별, 임상실습만족도,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여부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총 27.8%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를 반영한 다양한 교수법 활용 및 학습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자아 존중감 | 의사소통능력 | 임상실습 스트레스 | 간호 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A total of 198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constructed to include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Scale. As a result, self-esteem,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were found to be (Self-esteem: 3.4 ± 0.57 ; Communication competence: 3.5 ± 0.42 ; Clinical practice stress: 3.6 ± 0.58). Also, the nursing students with female (85.4%), experience of simulation on clinical training (72.2%)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clinical practice stress.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undesirable role model ($r=.156, p=.029$),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r=-.329, p<.001$).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communication competence, gende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experience of simulation on clinical training. They amounted to 27.8% in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results indicate a need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strategies to decreas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 keyword : Self-esteem | Communication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 Nursing Students |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 산업 및 의학 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로 하여금 기존의 전통적인 간호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역할을 기대하기에 이르렀다[1][2]. 이에 따라 간호대학에서는 전문 간호사 양성을 위하여 임상 실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졸업 후 임상에서 사용할 지식, 기술, 태도 습득 및 적용 방안을 익히도록 하고, 간호 이론과 실무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3]. 임상 실습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잠재력 개발 및 창의력과 응용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한 교육 방법이다[4]. 선행 연구에서 임상 실습교육이 불충분한 경우 졸업 후 임상 현장 적응력 및 임상실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져 임상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4][5].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통하여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간호 대학생 일 인당 임상실습 시간을 1,00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 실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6].

그러나 여전히 간호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임상 실습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실습생으로서 역할의 모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와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며 역할 수행 중 무능감, 임상 실무 및 실습과제의 과중함, 실습 평가의 압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도를 낮출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또한, 지속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 대학생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선행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습 내용, 환경, 학생지도 및 평가

방법 개선 등의 외적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3][7]. 그러나 간호 대학생의 개인 내재적 특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전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9].

간호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중재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자아 존중감 함양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10]. 자아 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지를 스스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11].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과정에 관여하며 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심리, 정서적 문제의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특히, 자아 존중감은 적응력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성취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선행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은 대응 방법 및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임상실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같이 독립변수로 두고 연구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급변하고 있는 의료보건환경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치료적 관계 수립을 도우며 전문직 간호인이 되고자 하는 간호 대학생이 습득해야 할 핵심역량이라 하였다[13]. 그러나 간호 대학생들은 다양한 연령 및 사회계층의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다시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방해요인이 된다고 하였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내재적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제

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D시 일 대학은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임상실습 14개 교과 26학점 총 1,020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자는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 2~4학년 200명을 비 확률 편의표집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명을 제외한 19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인 G power 3.1.3[14]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양측), 95% power, 효과크기 .15(medium), 예측변수 9개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66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 도구

2.1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정도로 자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1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6]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를 진병재[17]가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진병재[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0이었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순례, 이종은[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34로 나타났다.

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소통적 언어 능력,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구두 및 문자 언어의 이해 및 표현 기술을 내포하는 심리 생리학적 기제를 포함한 능력을 말한다[18].

본 연구에서는 Rubin, Palmgreen과 Sypher[19]가 개발한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를 허경호[20]가 번역 및 수정 보완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저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15개의 핵심 하부차원(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과, 반응력, 잠음 통제력)를 반영하도록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18로 나타났다.

2.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실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호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를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Beck, Sriavastava[22]가 개발한 'Stress Inventory'를 김순례, 이종은[4]이 번안 및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임상실

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5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각 영역 당 문항 수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 이종은[4]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7$, 하위영역 별 Cronbach's α 는 실습교육환경 .639,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843, 실습업무부담 .756, 대인관계 갈등 .810, 환자와의 갈등 .859로 나타났다.

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IRB1044348-20160303-HR-008-02)를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과 게시판에 연구 모집 공고를 올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책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되었으며, D시의 일 대학의 전임교원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연구 대상 간호학생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총 200부의 설문지 중 200부(100%)가 수거되었고, 미완성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98부(99%)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p > .05$ 으로 정규분포가 확인되

어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 169명(85.4%), 남학생 29명(14.6%)으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 57명(28.8%), 3학년 66명(33.3%), 4학년 75명(37.9%)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점은 '3.5이상 3.9 이하'가 100명(50.5%), '3.0 이상 3.4 이하'가 62명(31.3%), '4.0 이상'이 26명(13.1%), '3.0 미만'이 10명(5.1%) 순 이었다. 종교 유무는 '없음'이 132명(66.7%), '있음'이 66명(33.3%)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76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72명(36.4%), '만족하지 못한다'가 21명(10.6%), '매우 만족한다'가 15명(7.6%),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가 14명(7.1%) 순 이었다. 최근 대상자 권리장전 강화 및 대상자들의 간호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대안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이 적용되고 있다[23],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의사소통능력[24]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2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시뮬레이션 실습 여부를 파악한 결과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이 있다'가 143명(72.2%)으로 '없다' 55명(27.8%)보다 많았다. 인성 및 태도는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 대상자는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142명(71.7%)으로 '필요 없다' 56명(28.3%)보다 월등히 많았다[표 1].

표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198)

특성	변수	n(%)
성별	남자	29(14.6)
	여자	169(85.4)
학년	2	57(28.8)
	3	66(33.3)
	4	75(37.9)
학점	<3.0	10(5.1)
	3.0-3.4	62(31.3)
	3.5-3.9	100(50.5)
	>4.0	26(13.1)
종교	있음	66(33.3)
	없음	132(66.7)
임상실습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4(7.1)
	만족하지 못한다	21(10.6)
	보통이다	76(38.3)
	만족한다	72(36.4)
	매우 만족한다	15(7.6)
시뮬레이션 실습 여부	있다	143(72.2)
	없다	55(27.8)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142(71.7)
	필요없다	56(28.3)

2.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은 5점 만점에 3.4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6점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실습교육 환경 3.7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6점, 실습업무 부담 3.6점, 대인관계 갈등 3.7점, 환자와의 갈등 3.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표 2]와 같다.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은 성별($t=2.55, p=.012$), 학점($F=2.21, p=.048$), 임상실습만족도($F=5.51, p<.001$),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t=2.48, p=.01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점이 '4.0 이상'의 대상자 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3.4 이하'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만족한다'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 집단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집단보다 자아 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학년($F=11.77, p<.001$), 종교($t=2.33, p=.021$), 임상실습만족도($F=2.46, p=.047$),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t=1.90, p=.04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2,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

표 2.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n=198)

특성	변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전체		3.4±0.57			3.5±0.42			3.6±0.58		
성별	남자	3.7±0.63	2.55	.012	3.5±0.49	0.39	.699	3.4±0.52	-2.64	.009
	여자	3.4±0.55			3.5±0.41			3.7±0.57		
학년	2	3.4±0.49	0.24	.791	3.4±0.35 ^a	11.77	<.001	3.6±0.57	2.16	.118
	3	3.5±0.56			3.4±0.39 ^b	c.)a.b.		3.6±0.52		
	4	3.4±0.63			3.7±0.45 ^c			3.7±0.61		
학점	<3.0	3.2±0.70 ^a	2.21	.048	3.4±0.41	1.54	.206	3.7±0.70	1.01	.389
	3.0-3.4	3.3±0.52 ^b	d.)a.b.		3.4±0.38			3.6±0.61		
	3.5-3.9	3.5±0.55 ^c			3.5±0.43			3.7±0.55		
	>4.0	3.6±0.64 ^d			3.6±0.48			3.5±0.54		
종교	있음	3.5±0.59	1.64	.103	3.6±0.47	2.33	.021	3.6±0.59	-0.11	.910
	없음	3.4±0.55			3.4±0.39			3.6±0.57		
임상실습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3.0±1.57 ^a	5.51	<.001	3.3±0.35 ^a	2.46	.047	3.8±0.68	1.82	.127
	만족하지 못한다	3.2±0.51 ^b	d.e.)a.		3.4±0.46 ^b	d.e.)a.		3.8±0.70		
	보통이다	3.4±0.51 ^c			3.4±0.38 ^c			3.6±0.54		
	만족한다	3.6±0.58 ^d			3.6±0.39 ^d			3.6±0.51		
	매우 만족한다	3.6±0.54 ^e			3.6±0.64 ^e			3.4±0.69		
시뮬레이션 실습 여부	있다	3.4±0.57	-0.32	.753	3.5±0.44	1.78	.077	3.5±0.62	-2.79	.006
	없다	3.4±0.57			3.4±0.38			3.7±0.54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3.5±0.55	2.48	.014	3.5±0.41	1.90	.049	3.6±0.59	0.49	.627
	필요없다	3.3±0.57			3.4±0.44			3.6±0.54		

Post hoc: Scheffé test.

상실습만족도에 ‘만족한다’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 집단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집단보다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t=2.64, p=.009$), 시뮬레이션 실습 여부($t=-2.79, 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3. 자아 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변수인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56, p=.02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2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변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전체)	$r=.058$ ($p=.416$)	$r=-.329$ ($p<.001$) ^{***}
실습환경	$r=.047$ ($p=.510$)	$r=-.281$ ($p<.001$) ^{***}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r=-.156$ ($p=.029$) [*]	$r=.345$ ($p<.001$) ^{***}
실습업무 부담	$r=-.013$ ($p=.855$)	$r=-.110$ ($p=.121$)
대인관계 갈등	$r=-.040$ ($p=.580$)	$r=-.288$ ($p<.001$) ^{***}
환자와의 갈등	$r=.058$ ($p=.416$)	$r=-.257$ ($p<.001$) ^{***}

* $p<.05$, ** $p<.01$, *** $p<.001$

4.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보인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특성을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명목척도인 성별, 학년, 종교, 시뮬레이션 실습여부, 인문 및 인

성교육의 필요성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 검증을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946 ~.985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dex factor, VIF)는 1.015 ~ 1.057로 10 이하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항의 정규성 검정을 위한 Shapiro-Wilk test에서 $p=.521$ 로 .05보다 커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 결과 $d=2.186$ 으로 2에 가까운 값으로 독립성을 만족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4.883, p=.028$),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278로 설명력은 27.8%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beta=.349, p<.001$), 성별($\beta=.168, p=.011$), 임상실습 만족도($\beta=-.173, p=.010$),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여부($\beta=-.144, p=.028$)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β	t	p
(상수)	2.044	.410		4.986	<.001
의사소통능력	.474	.090	.349	5.257	<.001
성별	.273	.106	.168	2.581	.011
임상실습만족도	-.100	.038	-.173	-2.608	.010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여부	-.185	.084	-.144	-2.210	.028

*Dummy variables; $R^2=.294$, Adj. $R^2=.278$, $F=4.883$, $p=.028$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임상실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은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4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최선영, 유명란, 이미정[27]의 간호사관생도의 자아 존중감 3.1점보다 높은 결과이나 조결자, 박순복, 이명희[28]의 연변조선족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3.4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서양권의 경우 같은 도구를 이용한 Suliman, Halabi[29]의 연구에서는 3.79점으로 나타나 동양권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서양권 간호 대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동양권에 비해 서양권이 높고 간호사의 처우가 높은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적 차이 및 그 외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어려움을 변화의 기회로 인식하는 대처방식을 보인다[27]. 또한 개개인이 자기 자신과 주변 동료를 존중하고 조직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스트레스 감소 및 수행능력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7][24][25]. 이에 따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양 및 인문사회 교과목의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간호학 전공 교과목 운영과정에서도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같은 도구를 이용한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3.73점[30],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3.44점[13]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모든 사회조직과 사회현상의 기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특히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 해야 하는 간호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간호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전문직 간호인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간호대학에서 의사소통 증진 교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의식 의사소통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으로 한계점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

교육 요구도 및 실질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영[13]의 연구에서는 간호 임상상황 역할극 활동 등 직접 체험활동 위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학습이 선호된다고 나타난 만큼 학생의 흥미 및 참여도를 고려한 수행 중심 교육이 요구된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6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 별 평균은 실습교육환경(3.70점)이 가장 높았고, 환자와의 갈등(3.5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 김인숙, 장운경, 박수호, 송소현[1]의 간호 대학생 임상실습 스트레스 3.16점, 김순례, 이종은[4]의 연구 3.33점, 이에경, 유혜숙, 박인혜[23]의 연구 3.49점 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소속 일 대학의 자대 병원이 없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각 영역 별 평균 점수에서 실습교육환경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모두 포함해서 대다수의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평균 이상의 점수분포를 보여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심층적 분석 및 간호 대학의 적극적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임상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 임상실습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zarus, Folkman[31][32]은 Transactional model of stress and coping에서 환경은 개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객관적인 스트레스원보다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가 행위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학습능력 감소 및 학업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지각정도를 낮추는 방안 모색과 간호교육 환경 분석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은 낮은 양의 상관관계($r=.156$, $p=.029$)를 보여 임상실습 시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을 보거나 지도를 받는 경우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중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황성자[33]의 연구에서도 자아 존중감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낮은 양의 상관관계($r=0.22$, $p<.001$)를 보였다. 임상실습 시 간호사가 간호 학생을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간호 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간호수행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자신감이 결여된다고 하였다 [13]. 이에 간호 대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교육자로서의 태도와 전문직관 확립, 그리고 체계적 실습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r=-.329$, $p<.001$)를 보여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애경, 여지영, 정성원, 변상석[7]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47$, $p<.001$)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국외 연구 중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한 Altioik, ÜstÜN[34]의 질적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간호 직무 수행은 쌍방향적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상황을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례 중심형 의사소통능력 증진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13]. 이에 따라 간호 대학생을 위한 임상상황이 고려된 다양한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883$, $p=.028$).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성별, 임상실습만족도,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여부 순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총 27.8%였다. 특히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임상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 대학생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변인은 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23][35].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남학생은 스트레스 대처기전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반해 여학생은 전이(transference)와 회피(avoidance)를 주요한 대처 전략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으로 대학 및 산업체 간호사들이 포함된 동아리 모임 및 멘토-멘티 활동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변인은 실습만족도로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27]. 임상실습 만족도의 감소의 원인이 실습의 간호 대학의 양적 팽창, 실습 기관 부족, 임상실습 시 불명확한 학생의 역할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임상실습에 앞서 실습 목적 및 학생의 역할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임상실습의 질 향상이 간호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교수진과 임상가들이 함께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협력하여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변인은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이 관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지게 되는 불안감 및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상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실습환경 및 임상실습을 통한 실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 교수진의 임상과 유사한 시나리오 개발 및 다양한 교수 학습전략 및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아 존중감 및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방안 모색, 임상실습의 질 향상, 시뮬레이션 실습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분석 및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및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인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의사소통능력, 성별, 임상실습만족도,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여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의사소통능력 증진 방안 모색 및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관리, 임상실습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뮬레이션 실습 강화를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국내 간호 대학생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연구 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이수에 대한 변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여부 및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이수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 시 주요하게 사용하는 대처기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변인 및 매개변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이 있어 추후 확대된 대상자 표집을 통한 경로모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 결과와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7-345, 2011.
-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8
- [3]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6-225, 2011.
- [4] 김순례, 이종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8-106, 2005.
- [5] 임경춘, “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시뮬레이션기반학습의 방향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46-256, 2011.
- [6]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방안, 서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0.
- [7] 이에경, 여지영, 정성원, 변상석, “임상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와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299-308, 2013.
- [8] F. Sharif and S. Masiumi,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BioMed Central Nursing, Vol.4, No.6, 2005. DOI: 10.1186/1472-6955-4-6.
- [9] 박복순, 간호학생의 성 역할 정체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0] 하나신, 최명숙, “간호학생의 리더십 유형과 자아 존중감,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3-21, 2005.
- [11]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 (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NY: Academic Press, 1967.
- [12]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1호, pp.173-189, 2009.
- [13] 조인영,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2593-2601, 2015.
-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15]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1967.
- [1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pp.107-129, 1974.
- [18] L. F. Bachman,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19] R. B. Rubin, P. Palmgreen, and H. E. Sypher,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 a sourcebook*, NY: Guilford Press, 1994.
- [20]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회, 제47권, 제6호, pp.380-408, 2003.
- [21]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7-345, 2011.
- [22] D. Beck and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23] 이에경, 유혜숙, 박인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54-163, 2015.
- [24] 한영인, “간호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와 수업경험에 미치는 효과,” 보건 의료산업학회지, 제8권, 제1호, pp.135-150, 2014.
- [25] 신은정, 박영숙,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5636-5645, 2013.
- [26] 도은수, 서영숙,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83-291, 2014.
- [27] 최선영, 유명란, 이미경, “간호사관생도의 생도생활 적응 영향요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군간호연구*, 제32권, 제1호, pp.1-13, 2014.
- [28] 조결자, 박순복, 이명희,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과 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2호, pp.24-31, 2008.
- [29] W. A. Suliman and J. Halabi,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27, pp.162-168, 2007.
- [30] 이순희, 정승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340-349, 2014.
- [31] R. S. A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32] R. S. Lazarus and S. Folkman, “Transactional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s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1, No.3, pp.141-169, 1987.
- [33]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

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34] H. Ö. Altıok and B. ÜstÜn, "The Stress Sources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Vol.13, No.2, pp.760-766, 2013.

[35]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6-225, 2011.

저 자 소 개

양 선 이(Sun-Yi Yang)

정회원



- 2006년 12월 :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0년 5월 :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